

인체조각으로 순회 표현

김영원씨 禪퍼포먼스...11월14일까지 금호미술관

'절하기' 시리즈 下心강조... '범당 들어선 느낌'

극히 사실적인 인체 조각을 통해 생선과 소멸의 과정을 순회의 원리로 설명하는 조각가 김영원씨가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94년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의 정신을 선(禪) 퍼포먼스로 보여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가다.

개막 당일 오후 5시, 김씨는 새끼줄이 동여매진 커다란 석고 원기둥을 땀땀한 무아의 경지에서 뿜어나온 기운으로 손을 휘두르며 채 마르지 않은 석고 위에 선계를 그려내는 화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김씨는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 물질과 정신, 의식과 무의식 등으로 분열 대립된 세계를 통합하고 전체적인 비전을 확보해 그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우리 삶과 존재의 본래적 의미를 찾고 싶었다"며 '선 퍼포먼스'를 설명했다.

사실 김씨는 빛깔 없고 질감 좋은 대리석으로 다룬은 이상적인 여인상이나 현대적 세련미로 단장한 조각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다. 대중적인 조각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초대전에서 김씨는 '절하기' '중력 무중력' '걸어가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 '환' 등 1백여점의 낯설어 보이는 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인간의 순회와 순환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선(禪) 조각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죽 선 조각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 과정과 자신의 행위 그 자체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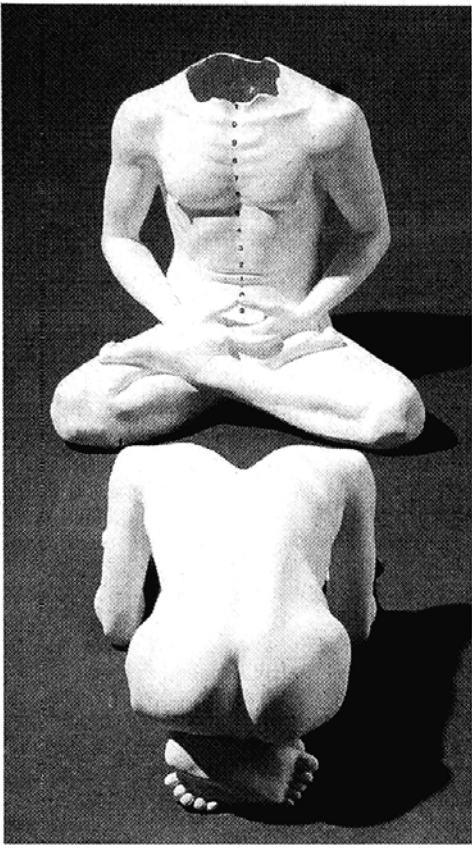
'절하기' 시리즈는 현대 산업사회의 팍팍하고 건조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성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하심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력 무중력' 시리즈는 크기가 다른 20개 인체 조각들의 연속 동작을 통해 복잡하고 서글프기만 한 인생의 숨겨진 뜻을 갈구하는 인간을 표현한다.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해 대형사진으로 뽑아놓은 '걸어오는 남자(여자)' 시리즈는 수십 개의 인체가 다양한 배열로 겹쳐지면서



◇선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김영원씨. 하나의 소설점으로 향하는, 역시 '합일'의 경지를 웅변한다.

따라서 김씨의 작품에는 모종의 압도감이 잠재해 있다. 마치 밭담에 들어섰을 때처럼 숙연함을 느끼기도 하고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김씨의 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선(禪)사상에서도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영원씨는 중앙미술대원에서 특선을 두 차례 했으며 현재 홍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720-5114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김영원작 '절하기'. 이상화된 인간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인체에 내재된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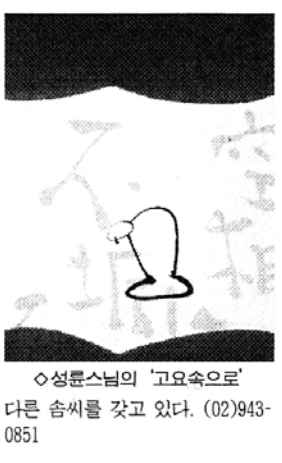
성륜스님 '북한산 심곡암展'

성륜스님이 30·31일 양일간 서울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몇 안되는 승려화가 중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펼쳐온 성륜스님의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북한산 심곡암'이다.

"심곡암의 전경을 화폭에 옮기면서, 수행적 본래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는 성륜스님은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정갈한 수행도량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개인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성륜스님은 흔히 '선화'라고 지칭되는, 불교적 사유가 담긴 작품활동 외에 설치미술에도 남다른 솜씨를 갖고 있다. (02)943-0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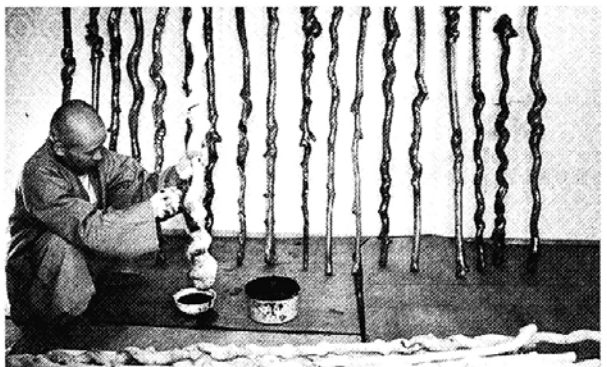
◇성륜스님의 '고요속으로' 다른 솜씨를 갖고 있다. (02)943-0851

부산에 동국불교미술연구소 개소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미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미술연구소가 최근 문을 열었다. 일간 불교세계 부설로 발족한 이 연구소 이름은 '동국불교미술연구소(소장 한승구)'.

연구소는 불화 단청 벽화의 불교미술사료에 대한 연구 및 재조명, 불교미술서적 발간, 불화 단청 제작 및 보수 등을 하게 된다. 불교미술에 관심있는 1·2·3년 과정의 연구생을 모집, 불교미술가로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있다.

연구소는 정명호 문화재전문위원(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은 김용환(부산대교수) 황신규씨(동의공업대 교수), 연구위원은 광동해 경경용 천성철 문화재 단청수리 기술자, 그의 수석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051)515-0925



◇우리 고유 소나무의 자연적인 모습을 그대로 살려 전통 육환장을 만들고 있는 학림스님.

학림스님 수공예전 '어바부바술'

25-31일 부산 태화백화점 전시관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육환장, 송진독으로 재현한 생활다기 등 사원전통 수공예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봄 서울에서 사원전통수공예 수행용품전을 개최해 호평을 받은 학림스님(조계종 육환장 연구원장)이 10월 31일까지 부산 태화백화점 원앙홀 전시관에서 사원전통수공예전 두번째 '어바부바 술'전을 개최한다. '어바부바'란 '참 좋다'라는 한겨레 진언.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수천년을 살아왔고 약재와 건축재 식량 등 다양하게 쓰였던 토종 소나무를 재료로 만든 찻상, 다기, 촛대, 향꽂이, 목침, 육환장, 지팡이, 죽비, 종명치 등과 호신봉, 옷판 등 생활용품, 불구용품 등 총 2백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찻잔받침, 다과접시, 송차잔, 활력광물 등은 거승(巨승)이 죽어 수십년 발효된 솔뿌리기름인 송진으로 만든 것으로 자연적인 모습과 그윽한 솔향기가 일품이다. 학림스님은 3년의 전통공예 기법과 장엄하며 소리가 맑은 육환장을 재현해 이번에도 33개를 전시한다. 나무의 자연적인 비를림을 그대로 살린 육환장은 생꽃칠과 금도금을 해 전통 육환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011)888-1118 이경숙 기자(gslse@buddhania.com)

'직지심체요절' CD-롬 제작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과정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CD-ROM이 개발됐다.

청주 사이버직지문화연구소(대표 정덕형)가 청주지역 업체 '한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제작한 CD-ROM '개달음의 이야기-직지'는 △직지의 역사적 배경 △직지의 구체적 내용 △직지 제작과정 △도표로 보는 인쇄사 등의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자로 된 직지 내용 전문, 최초 한글 금속활자 원인전강지록 전문뿐 아니라 함께 풀어 쓴 직지 이야기, 인간 문화재 오국진씨의 금속활자 제작과정 동영상,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프랑스 국립도서관·청주 오국진 박물관 사진 영상 등이 담겨 있다.

정덕형 소장은 "그동안 직지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 것이 거의 없어 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신세대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CD-ROM으로 제작돼 교육용뿐만 아니라 상품화돼 직지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운스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 4천여 관중 '48원' 서원

첫 오페레타 '아미타불' 극흐름 단조로워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운스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는 밀레니엄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40여 년동안 청소년 법회와 찬불가 창작 보급 운동을 수행의 방편으로 살아온 문운스님의 업적에 대한 치하는 물론 해방이후 한국 찬불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불교 음악의 장르로서는 처음으로 창작 오페레타 '아미타불'(작곡 정부기, 지휘 이인원)을 함께 발표해 공연전부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행사는 출연자 1천여명을 비롯 3천여명의 관객이 동참한 대규모 음악회였다. 1부에서는 조계종 소년소녀합창단 등 35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연합합창단의 '누가 누가 예뻐까' 등과 8백여명의 어머니연합합창단의 '찬불가' '보현행원' '산화가' 등 문운스님의 작품들이 연주됐다. 2부에서는 법장비구의 48서원과 성불과 정을 극으로 꾸민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40분간 장엄하게 공연됐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미타불'의 마지막 장면.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믿는 중생은 누구든지 끝없는 열반의 기쁨을 누리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대목에서 공연에 참가했던 1천여명의 출연자들이 함께 나와 손을 잡고 '찬불가'를 합창하며 객석과 함께 발심 화합하는 모습은 최근 조계종 사태와 대비되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번 음악회는 봉원사·봉선사·화계사·영산 법화사·한마음선원 등 서울 및 수도권 20개 합창단을 비롯해 대구·부산·제주 등 전국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다만 오페레타 '아미타불'은 단조로운 줄거리를 뒷받침 해줄 법장 비구의 드라마틱 하며 극적인 모티프가 약해 관객들로 하여금 재미를 덜 느끼게 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관현악단과 무대위의 배우들, 합창단등을 흡인력 있게 리드하지 못한 것은 서정적이며 등을 진행에 대한 선을 사용으로 극적인 변화를 피하고자 시도한 작곡가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타종교에 비해 포교 음악의 역사가 짧아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불교 음악계의 현실속에서 이번 음악회는 새 천년을 앞두고 교계 최초의 음악 장르인 오페레타의 서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연극 '천년보다 깊은'에서 광기어린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전무송.

전무송씨 연극 '천년보다 깊은' 출연

불자 연극배우 전무송(59)이 29일부터 12월5일까지 광화문 제일회화세실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천년보다 깊은'(변영국작, 민복기연출)에서 종(鐘)만드는 광기어린 장인으로 무대에 선다. 성덕대왕신종(예비레종)을 만든 장인의 열정을 그린 이 작품에서 전무송은 최고의 종소리를 얻기 위해 손너까지 제물로 바치려는 '박부부'라는 주종박사다.

그는 이같은 무모한 방식을 반대하는 라이벌 박종익(전국환분)과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박부부는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02)543-4994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의 비밀과 순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이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소설 觀

부성기획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觀

부성기획 지음 460쪽 /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